

마음의 눈 뜨게 한 지혜의 책

시인 김소연씨가 뽑은 생 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이 책은 내게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내 정신이 얼마나 속세에 찌들었는지 알게 해주죠.”

작품만으로 그 작가를 다 안다고 해선 안될 것 같다. 시인 김소연씨(35, <펜슬> 기획위원)를 만나고 든 생각이다. 김씨는 1996년 펴낸 《극에 달하다》(문학과지성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미세하고 이국적인 언어, 그러면서 ‘남성세계’에 대한 심미적 저항을 보여줬던 이 시집을 읽으며 키워온 시인의 이미지는 ‘옹골차면서 내성적인’ 어떤 것이었다.

그런데 직접 만난 시인의 모습은 영 판판이었다. 마치 반항적인 10대 소녀를 연상시켰다. 보라색으로 물들인 머리, 맞춰 입은 듯한 보라색 티셔츠와 바지, 거기에 흰색의 튀는 운동화. 다소 당황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를 잡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의표를 찌른다. 그가 들고 나온 책이 생 텍쥐페리의 《어린왕자》(문예출판사)였기 때문이다.

《어린왕자》를 읽어보지 않은 이가 있을까? 이런 초특급 베스트셀러를 또 읽어보라고 들고 나온 시인의 심보는 뭘까? 궁금증이 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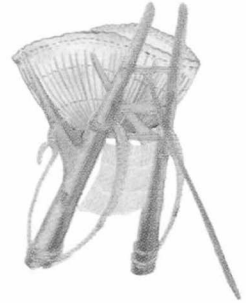
그는 “이 책은 내게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하고 입을 연다. 무슨 똥판지같은 소린가. 그런 표정을 짓자 시인은 “내 정신이 얼마나 속세에 찌들었는지 알게 해주죠” 하며 덧붙인다. 말하자면 약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마음의 건강상태를 체크한다는 것이다.

판권을 보니 문학평론가 김 현이 우리말로 옮겼다. 이 판본은 생 텍쥐페리의 문학과 프랑스 언어의 특징을 최대한 살린 번역이다. 이 번역본 때문에 그는 되풀이해서 《어린왕자》를 봤다. 어른이 돼서 읽었을 땐 “정말 구석구석 명문장이고, 빛나는 지혜덩어리”라고 느꼈다.

“한번은 책 속에 나오는 ‘양이 든 상자’를 흉내내기도 했죠. 어린 조카가 어느 날 포크레인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고심하다가 상자 하나를 그려줬죠. 그러면서 그 안에 포크레인이 들어있다고 말해줬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시인의 참패였다. 영특한 조카가 꾀부리지 말고 다시 그리라고 응수했던 것이다. 아무튼 시인은 “가시적 세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눈, 그 가치를 일깨워준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재 부업도 하고 있다. 일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사설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웃는 책’이란 이름을 붙인 이 도서관은 아침 10시에 열어 6시에 닫고, 열람석 30석은 매일 만원이다. - 강성민 기자



「완자무늬」는 저자와 독자 사이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 집단입니다.

단행본 · 아동물 시리즈 기획 · 편집
자서전 · 회고록 집필 대행
사사(社史) · 사보(社報) · 편집대행

곰삭은 경륜과 톡톡 튀는 기가
한데 어울려
「악!」 소리 터지는 결과물을
창조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E-mail : wanja3533@hanmail.net
전화 : 322-3532~3
팩스 : 322-3534